

브리팝 전설 '비틀즈' vs '오아시스' 영화로 나란히

화려함 속에 가려진 인간적인 비틀즈와 불화로 해체한 오아시스 다큐멘터리로 다뤄

1960년대와 1990년대를 각각 대표하는 영국의 록밴드 '비틀즈'와 '오아시스'의 공연 실황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란히 스크린에 걸린다.

19일 개봉하는 영화 '비틀즈: 에이 데이즈 어 워크 - 루어링 이어즈'는 론 하워드 감독이 연출을 맡아 눈길을 끈다. 2002년 '뷰티풀 마인드'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흥행감각을 인정 받은 감독이다.

2013년 합합 아티스트 제이Z(Jay-Z)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제이-Z: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 이어 두 번째 다큐멘터리에 도전한 하워드 감독은 비틀즈의 팬을 자처하며 그들의 전성기 시절을 재조명한다.

1963년부터 1969년까지 비틀즈 멤버들을 무대에서 볼 수 있었던 4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62년 데뷔 이후 1세대 아이돌로서 단정함 모조리에 뱅헤어 스타일과 함께 대중적인 음악을 선보이며 소녀 팬들의 우상으로 떠올랐던 비틀즈는 1967년에 이전까지 선보여 온 음악과는 전혀 다른 실험적인 앨범 '서전트 페퍼스 례리 하트 클럽 밴드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를 발표한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비틀즈 (왼쪽)와 오아시스 (오른쪽)

영화는 이 음반 발표 직전 4년 간의 드라마틱한 삶과 화려함 속에 가려진 고뇌를 다루며 인간적인 비틀즈를 다룬다. 역사적인 공연들이 최신 기술력으로 복원 스크린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되는 것도 팬들에게는 선물이다. 당시 미국 TV프로그램 사상 최다 시청자 수인 7300만 명을 기록했던 '헤드 셸리번 쇼'에서의 라이브 공연 등 총 12개의 비틀즈의 공연의 리마스터링 영상이 담겼다. 1991년 결성된 오아시스는 '제2의 비틀즈'라는 찬사를 받으며 브리팝의 부흥기를 이끌었다. 1994년 데뷔앨범 '데피니드 마비(Definitely Maybe)'는 당시 영국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데뷔 앨범이라고는 믿기 힘든 완성도의 이 앨범은 '슈퍼소닉' '케이케이

키' '라이브 포에버' 등 술한 히트곡을 내며 이들을 대형 록밴드로 발돋움시켰다. 이후 비틀즈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팀의 주축 멤버이자 형제인 노엘 갤러거와 리암 갤러거의 불화로 2009년 해체했다. 이후 노엘은 자신이 이끄는 밴드 '노엘 갤러거 하이 플라잉 버드', 리암과 오아시스 다른 멤버들은 비디 아이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전성기를 기억하며 재결성을 바라는 팬들이 많다.

11월 개봉 예정인 매트 화이트크로스 감독의 '슈퍼소닉'은 1996년 8월 이틀간 영국 법원에서 열린 오아시스 공연을 모티브로 삼았다. 이 무대를 보기 위해 무려 25만명이 몰려들었다. 티켓 구매를 신청한 사람만 해도 250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3년 전 도식 외곽의 번두리 지하연습실에서 출발한 이 공연의 신드롬 과정을 쫓는다. 두 형제가 마주한 모습이 아닌, 따로 인터뷰한 장면이 담기지만 이들의 얼굴을 한번에 볼 수 있다는 점도 팬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같은 기간 스크린 밖 두 팀에 대한 국내 열기 역시 뜨겁다. 비틀즈의 드러머 링고 스타는 11월5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첫 번째 내한 공연을 펼친다.

지난해 비틀즈 멤버 중 첫 내한한 주축 멤버 폴 매카트니 때보다 열기가 덜 하지만 지난해 멤버 4명 가운데 마지막 분 한국서투문화의전당 모야당에서 갖는다. 그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이라 팬들의 기대가 크다. /뉴스시

김부견 작가 개인전 “꽃은 생명체의 근원이자 시작이라는 깨달음”

'백개의 그림 백의 생각' 개최

김부견 작가의 화풍이 요 근래 달라졌다. 작품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파스텔 톤의 꽃들이 한가득 피어난다.

이는 “꽃이 생명체의 근원이자 시작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이다”라고 작가는 말한다. 그는 “올봄 꽃밭을 가꾸다가 꽃들의 약동을 보고 그간 도외시 했던 주변의 소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수년간 천착해온 화엄세계가 이 작고 보잘 것 없을 것 같은 꽃들의 힘찬 생명과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작가는 작은 꽃 한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우주의 달빛, 이슬, 햇살, 바람이 꽃을 맴돌며 공력을 다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저마다 찬란한 꽃이 된다는 장엄한 세계를 상상하게 되면서 꽃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한다. 꽃그림을 통해 작가의 생각도 많이 유연해졌다고 한다. 이전 작품에서는 관객들에게 불교에



김부견 작가의 화풍이 전에 볼 수 없었던 파스텔 톤의 꽃들로 바뀌었다.

술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는 관객이 느끼는 대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작품 활동을 떠나갈 것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한다.

김부견 작가는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정해은 기자

제1회 대한민국청년미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6년 후쿠오카 아시아아트페어 등 다수의 기획·초대전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시는 오는 23일까지 교동아트미술관. /정해은 기자

전라북도립국악원 오늘

30주년 기념 교수음악회

전라북도립국악원 교수음악회는 '소리담다'를 주제로 지나온 소리를 담고 다가올 소리를 준비하는 무대를 오늘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야당에서 갖는다.

교수음악회는 도립국악원 설립의 모태가 되었던 교수실(1986년 10월 국악원 개원 당시 초빙했던 우리지역 최고의 명인·명창 교수진) 모임을 이번 무대에는 25명의 교수진과 10명의 도립국악원 예술단이 출연해 여섯 개의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프롤로그는 대고를 통해 서막을 알린다. 이어 전라북도 국악과 도립국악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봉·전·류(봉하고 전해서 흐른다)' '무대가 합창과 관현악단의 공연으로 펼쳐진다. 또 호남삼풀이, 산조 합주가 판소리 '정정달제 춘향가 중 월매의 실랑' 대목, 가야금과 춤으로 꾸미는 '춘설' 등의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음악회는 남도민으로 관객과 함께 하나 되는 무대로 갈마무리 된다. /정해은 기자

혼불학술세미나, '혼불' 문화·공간 조명

22일 오후 3시 최명희문학관에서 열리는 혼불학술세미나에서는 <혼불>의 언어와 서사를 통해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화와 공간을 조명한다.

혼불기념사업회(대표 장성수·전북대 명예교수)와 최명희문학관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문학박사 엄숙희 씨와 전남대학교 국문과 신예연구자인 정미선·조아름 씨가 발제자로 나선다.

엄숙희 씨는 '균열의 서사와 주체'를 주제로 공동체적 삶이 해체되어 가는 시기의 분열상을 깨고 혼불이 기존 체제에 반대 일어나는 위반과 균열 그리고 봉합의 문제에 집중해 서사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에 주목할 예정이다.

정미선 씨는 '서사적 텍스트성의 층층'을 통해 혼불에 익숙하게 등장하는 전통의 복원과 역사의 재현 민족 정체성의 재구 등의 서사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조아름 씨는 '혼불 속 여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여성과 장소와 공간을 다룬 '여성(성)의 장소·공간 분화'를 발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문학박사인 송준호(우석대 교수)·김병용(전북대 초빙교수)·정일규(전남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연구자들의 성과를 이야기한다.

한편, 이날 세미나가 끝난 후 제1회 혼불학술상 시상식이 함께 열린다. 올해 혼불학술상은 <혼불, 언어·문화·공간을 읽다>(전남대학교출판부·2015)가 선정됐다.

이는 전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신예 연구자들이 혼불을 구심점으로 소설·시·극영화 등 각기 다른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개별적이고 독특한 접근을 시도해 그 성과를 묶은 책이다. 문의 063)284-0570 /정해은 기자



'정읍농악 놀이와 진화' 공연

정읍시립농악단, 22일 예술회관에서

정읍시립농악단이 오는 22일 오후 4시 정읍시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하반기 정기공연을 갖는다.

공연명은 '정읍농악, 놀이 & 진화'로 공연에서는 다양하고 세련된 장단이 돋보이는 편별 개인놀이와 특별 초청공연인 왕기석 명창의 판소리, 그리고 변화무쌍한 진법과 화려한 춤사위가 돋보이는 정읍농악 판국 한바탕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시립농악단원들은 정읍농악 보존회의 중심축으로 활동하며 정읍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해 많은 공연을 펼치면서 노력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읍의 대표적 전통문화예술인 농악을 알리는데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이어 "정읍을 찾는 많은 다중 관광객과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아 뛰어난 예술성과 흥겨움이 돋보이는 정읍농악 공연을 함께 즐기며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립농악단은 올해 들어 50여 차례의 찾아가는 농악 공연을 펼쳐 많은 인기를 모았다. 특히 지난 8월 내장산위터파크에서 진행된 '한여름밤의 연희콘서트 농악 & 정읍' 공연은 휴가철을 맞아 정읍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정읍농악의 멋과 흥을 선사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10월 20일>



▷쥐띠

46년생: 공식적인 일은 좋은 결실을 맺는다.
60년생: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운이다. 전문가와 상의하라.
7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기는 운.
8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결실을 맺는 운이다.
64년생: 자신보다 약한 사람과 함께 일을 진행하면 좋다.
76년생: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좋은 결실.
88년생: 지금은 결실을 맺으려고 할 때가 아닌 준비하는 때.



▷원숭이띠

59년생: 동생과 함께 일을 진행하기보다 이성과 함께 진행하라.
69년생: 잠재되어 있는 운이 표출되려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8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어긋나면 때로는 잠시 쉬어라.
92년생: 정신적, 체력적으로 소모는 많으니 결실을 적다.



▷소띠

49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방치하면 나이지 않는다.
61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는 운이다.
73년생: 손이뻘사람에게 베풀면 후에 큰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85년생: 서로 웃고 있으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범띠

53년생: 외부적으로는 좋은 일이 생기나 내부적으로는 다름.
65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화합이 필요하다.
77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뒷사람과 함께 움직여라.
89년생: 항상 잘 되고 있을 때 겸손함과 초심을 잃지 말라.



▷말띠

57년생: 마음이 심란하고 정신이 맑지 않다.
69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
81년생: 아무리 좋은 일을 해준다고 해도 상대에게 원망 듣는다.
93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좋은 결과.



▷염소띠

50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62년생: 동료나 가까운 사람과 구설로 인해 고민.
74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투기는 삼가라.
86년생: 문서작성, 문서를 주고받는 일에 좋은 운.



▷말띠

54년생: 먼저 베풀면 후에 얻게 될 것이다.
66년생: 이동 변동 변화를 가지게 되면 운이 상승하는 시기.
78년생: 원할 일 없이 있으면 성성에 주의하라.
90년생: 침체 되어있던 운은 지나가고 활기찬 운이 도래.



▷개띠

43년생: 작은 문서를 접거나 움직이는 것은 무방하다.
55년생: 재물운은 좋으나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67년생: 정신이 위지 않으니 실수를 하거나 판단 오류를 범한다.
79년생: 안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밖으로 나가야 좋은 운.
91년생: 인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밖으로 나가야 좋은 운.



▷토끼띠

51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받으나 결과는 좋다.
63년생: 타인을 도와주면 공이 돌아오니 이 또한 덕을 쌓는 일.
75년생: 동기적으로 인해 성가신 일이 발생한다.
87년생: 어차피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용띠

55년생: 동기적으로 함께 하면 기쁜 일이 생긴다.
67년생: 무난한 운이다. 이럴 때에는 큰 욕심만 부리지 말라.
79년생: 관심을 표현한 구설수와 손재수가 따르니 주의하라.
91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특히 기진지 계통과 세균성 장염에 주의.



▷돼지띠

47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근심 걱정 할 일이 생긴다.
59년생: 지병이 있는 사람은 잊지 말고 복용하는 약을 챙겨라.
71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83년생: 손이뻘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반드시 돌려받는다.